



‘음식의 제국’ 예번 D.G.프레이저·앤드루 리마스 지음

우리는 식량의 노예다 어떤 기술로도 농업의 한계를 뛰칠 수 없다

조금 과장하는 듯 싶었다. ‘음식은 어떻게 문명의 흥망성쇠를 지배해왔는가?’라고 붙여있는 부제나, “우리는 음식이 지배하는 제국의 노예다”라는 띠지에 적힌 글도 그랬다. 그저, 음식의 역사, 식품의 역사 등 이른바 작은 것의 역사라고 일컫는 미시사(史)를 다루면서 ‘음식의 제국’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였겠지 싶었다. 음식이 아무리 인간의 삶에 빨 수 없는 존재라고는 하지만 ‘식품 제국’이 어떤 문명도 있을 수 없다는 건 비약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음식의 질을 따지거나 좋고 나쁜 선호도를 가리는 문제를 생존 문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체감도 낮았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생각이 달라진다. 미국 농경학자 예번 D.G.프레이저와 저널리스트 앤드루 리마스가 쓴 ‘음식의 제국’은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 전 지구적 재앙에 음식 문제까지 더했다. 아니, “금융 위기는 인간의 삶을 망치지만 식량 위기는 삶을 끝장낸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식품은 부(富)다. 식품은 예술이고 종교이며 정부이고 전쟁이다. 그리고 영향력을 갖는 모든 것이다...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식량의 노예다”라고 했다.

저자들은 눈거울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근대 대영제국, 현대 중국 산샤댐까지 시공을 넘나드는 하면, 화신도 가득 실은 대형 범선, 거대한 곡물저장탑, 플랜테이션 농장 등을 넘나들며 빵과 포도, 암탉, 토마토 등의 음식이 인류사의 물줄기를 뒤틀고 ‘순간’을 짚어냈다. 문명은 식량이 있는 곳에서 쑥텄고, 식량난이 심해지면 문명도 멸망의 길로 접



밀레의 '만종'



밀레의 '이식줍기'

어들었다는 방대한 사례를 자세하게 풀어놓는다.

눈길을 끄는 게 로마의 사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로마가 ‘빵의 부족’으로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됐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책은 따뜻한 날씨 덕분에 곡물 농사는 항상 풍년이 있고 포도밭과 올리브 농장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맺혔던 로마가 흑연이 닥치고 강우량이 줄고 지력이 떨어져 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더니 견고했던 문명이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생산이 줄면서 조세 제도가 가장 먼저 썩었다. 세금이 없으니 군대도 사라졌다. 도로를 보수하고 강도와 해적을 잡을 군대가 없으니 식품 교역도 멎었고 자연스럽게 시장도 사라졌다. ... 로마에 입성한 서고트족 족장 알라리크는 로마인들이 여전히 기근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음을 발견했고, 재빠른 포위공격에 로마는 쓰러졌다. 로마인들은 몇 주를 버티지 못하고 성문을 열었다.

빵의 부족이 마침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저자들은 방대한 사례를 들어다본 뒤 현대로 눈을 돌린다. “역사는 둘고 돈다. 거대한 문명은 결국 단단한 땅 위가 아니라 놀이 진정에 세워졌다”는 점을 내세워 앞으로 닥칠 식량난을 경고한다. 땅은 비옥하고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낙관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인지 꼬집고 “인간은 어떤 점단 기술로도 끝과 씨앗, 물과 햇볕이라는 농업의 한계를 뛰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땅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 ‘지속 가능한 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년생 작물을 심어 자연 상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기계 대신 사람의 근력을 사용해 한정된 석유 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기 방안 등도 소개한다. 공정무역, 유기농, 슬로푸드 등도 들여다본다.

책을 덮고 나면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는 말을 수긍할만하다.

〈알에이치코리아·2만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죽은 노인들, 단서는 숫자 ‘16145’

깊은 상처

넬레 노이하우스 지음

‘유대인 노인들의 죽음과 숫자 16145의 비밀.’ 베스트 셀러 ‘액슬공 주에게 죽음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신작 ‘깊은 상처’가 나왔다.

수사반장 보렌슈타인과 여행사 피아가 등장하는 ‘타우누스 시리즈’ 중 한권인 ‘깊은 상처’는 ‘액슬공주에게 죽음을’의 바로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소설은 나치, 유대인 등 독일 근현대사를 직시하게 만드는



소재들이 활용돼 눈길을 끈다.

소설은 부유한 유대인 노인이 마치 나치의 처형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총살당했다

는 소식을 수사반장과 피아가 전해들으면서 시작된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피로 쓰인 의문의 숫자 ‘16145’를 발견하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멀리 후도 한명의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고, 역시 똑같은 숫자가 남겨진다. 〈북로드·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히틀러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히틀러의 성공시대 1

김태권 지음

만화가 김태권의 작품들은 기발한 상상력으로 독자들을 유쾌하게 만든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어린왕자’를 비튼 ‘어린왕자의 귀환’도 그렇고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김태권이 일간지에 연재했던 만화는 끝을 풀어놓았던 ‘히틀러의 성공시대 1’이 나왔다. 멀리 후도 한명의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고, 역시 똑같은 숫자가 남겨진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시대1’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히틀러의 정치적 입문부터 1930년 총선에서 승리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또 괴벨스, 슐라이허 등 주변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히틀러를 둘러싼 각종 음모를 등재되었던 내용들이 펼쳐진다. 책은 각 회마다 등장하는 인물과 역사적 장소 등을 설명, 독자들의 이해를 돋운다. 2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얻었는가?=자신의 신념에 기반한 ‘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 빌리 브란트, 모든 것을 칠자히 준비하여 기회를 만들기로 일어나는 아문센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손에 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털어 면지나지 않는 깨끗함으로 로마 고황궁 전성기를 이끈 그레고리우스 7세, 변방에서 새 시대를 이끈 이성계, 꿈의 왕국을 이룬 월트 디즈니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 21명을 통해 현재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아름다운사람들·1만6000원〉

▲나쁜 식탁 건강한 밥상=건강 뿐 아니라 지구 미래를 살리기 위한 ‘한번 더 생각하는’ 식생활을 다룬다. 음식과 환경, 미레 세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음을 지키는 암마들의 모임’이 엮였다. ‘아이들을 위해 더욱 양보할 수 없는 간식’, ‘맛을 더해주는 먹거리’, ‘자연의 모습을 한 먹거리’ 등 먹음식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민음인·1만3500원〉

▲남자의 순정=‘재미없는 소설을 뛰어넘는 써요? 소설은 재미있어야 해요’라고 말하는 김이연의 50번째 소설. 지난 2004년 소설 ‘타투’를 출간하고 8년 만에 내놓은 것으로, ‘남자의 순정’을 먹고사는 주인공 시아, 아무 이유 없이 시아에게 삶을 건 용수 등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답게·1만3000원〉



▲11/22/63 1=미국 인기작가 스티븐 킹의 신작, 미국인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여행자를 주인공으로 암살 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시간 여행자를 소재로 했지만 특정된 장소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만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뻔한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펼쳐내고 있다. 암살자 리 하비 오스월드의 행적을 풀으며 쿠바와 핵 대치 등 냉전시대 미국에 대한 묘사도 실감나게 그려놓았다. 전 2권으로 1권만 먼저 출간됐다.

〈황금가지·1만3500원〉

▲향연=아나기 코지가 블라운의 ‘향연’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내놓았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탐정이 돼 아테네 광장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풀어놓는다.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죽음을 다루면서도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 새로운 시각으로 긴장감을 주면서 친밀하게 묘사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슬림·1만2000원〉

▲왕의 하루=‘실록과 사관이 미쳐 쓰지 못 한 비밀의 역사’라는 부제로 조선 역사를 바꾼 하루에 포커스를 맞춰 풀어내고 있다. ‘역사를 바꾼 운명의 하루’, ‘군신이 격돌한 전쟁의 하루’, ‘하루에 담긴 조선 왕의 모든 것’ 등 3부로 나눠 연산군이 폐위된 날, 소현세자와 정조가 죽은 날, 세조와 김종서가 격돌한 날 등 역사적 하루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김영사·1만5000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출판되는 책은 조선 시대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책. 생활 속에서 도자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도자기 무늬를 새겨넣은 도공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시대 상황과 사상,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도자기 사진 70여컷이 곁들여져 보는 재미가 적지 않다.

〈창비·1만2000원〉

▲돌이서 사랑해=사랑 이야기 18편을 엮어 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짧은 글마다 그림이 시원하게 어우러져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꾸몄다. 안데르센상 수상작가인 위르크 슈비거가 기쁨·슬픔, 희망·절망, 기대·좌절 등 사랑할 때 겪는 순간의 감정을 밀도 있게 녹여냈다.

〈다산기획·1만원〉

▲검정소금 붉은 도깨비 1~3=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돌이터’에 연재됐던 이야기를 3권짜리 단행본으로 만들어냈다. ‘소금이와 달팽이’, ‘붉은 도깨비와 산신령’, ‘잔별과 물꼬대 왕’ 등 전통 사상을 판타지 동화로 승화시켜 아



가 걸어온 발자취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간지, 잡지 등에 실린 기사를 뛰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문화의 수용자이면서 주체인 조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책에는 1935년 호외까지 만들어 뿐만 아니라 1910년 경성 남촌에 세워진 최초의 영화관 ‘경성고등연예관’과 부인석이 따로 있는 초창기 영화관 등 현재로서는 신기하기만 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

1903년 6월 23일자 황성신문 동대문 한성전기회사 기계창고에서 실린 활동사진 상영 광고에 나타난 입장료 10전이라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책과 함께·1만48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상상 이상의 미래... 영화같은 일들이 눈앞에

‘미래가 보이는 25가지 트렌드’

크리스토퍼 바넷 지음

하늘을 나는 자동차, 화성으로 떠나는 휴가, 생각으로 조종하는 컴퓨터, 맞춤형 애기 등.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까. 미래학자 크리스토퍼 바넷은 ‘미래가 보이는 25가지 트렌드’에서 미래를 움직일 25가지 트렌드를 자세히 풀어놓는다. ‘10년 후 세상을 읽는 기술’이라는 부제나 ‘상상 이상의 미래가 오고 있다!’는 프롤로그를 읽다보면 영화 속 미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

기후변화, 식량난, 자원 고갈 등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소개하고 있는 차세대 과학기술 및 핵심 산업 등은 눈길을 끌



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풍요의 시대는 끝났다’, ‘주목받는 새로운 산업’, ‘미래 에너지를 찾아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다’, ‘신인류가 나타난다’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작물 재배나 가축 사용 용도로 사용되는 고종 건물은 말하는 수자 농장의 경우 국내에서도 연구용으로 운영중인 민물 흥미롭게 읽힌다. 데이터를 이용, 실제 물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생물학을 접목하면 손상된 신체와 장기에게 이식할 인공 신체 및 장기 생산할 수도 있다는 설명도 솔깃하다.

〈더난출판·1만98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여인을 통해 만나는 한 이야기꾼의 일생

‘여울물소리’

황석영 지음

단편 ‘입석부근’으로 1962년 등단한 지 50년이 된 소설가 황석영이 장편소설 ‘여울물소리’를 내놓았다.

봉건적 신분 질서가 무너져가고 외래 신분들이 들이닥치는 격변의 19세기, 한 이야기꾼의 일생을 다룬 것으로, 서얼로 태어난 ‘이신’의 행적을 1인칭 관찰자인 ‘박언옥’의 입을 통해 전개해 나간다.

몰락한 지식인으로 신분제에 가로막힌 조선 말기의 청년 이신이 강답자, 재답꾼, 광대불주, 연희 대본가, 그리고 천도(동학)에 입도해 혁명에 참가하는 파란 만장한 일대기가 소설의 큰 줄거리다. ‘이야기꾼’이 주인공인 만큼 소설가 황석영의 ‘아버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작가는 “이야기를 쓰겠다고 작성하고, 처음에는 19세기쯤에 갖다 놓고 그냥 허황된 민담조의 서사를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우리네 그만해 현실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고 책 말미에 썼다.

〈자음과 음·1만5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영화 초창기 모습은 어땠을까?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김승구 지음

1920년대 중반 열여덟 살 먹은 청년이 ‘견지동 김 XX’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사진 배우를 부